

투데이 칼럼

리관유의 통치 철학

아시아에서 가장 독재 정치인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싱가포르 건국(1965년)의 영웅이자 초대총리 리관유를 지목한다. 그는 31년간 장기집권을 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6백만 국민의 다수는 그를 영웅으로 존경하는데 이의가 없다. 그의 통치철학을 내용으로 구분해보면 첫째 불법과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계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법집행의 실행확보를 위한 체벌(곤장)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곤장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번째로는 모든 행정의 목표는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에 두고 있다. 현재 1인당 GNP 9만달러(1억3천여만원), 구매력은 13만달러(1



홍민기
수필가

억 8천만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셋째 나라와 국민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비 등 투자에 재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민 대다수는 그의 정책을 따른다. 그는 재임기간 내내 군면, 검소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철권통치로 정적의 비난에 직면했지만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의 지지

이념과 정당이 있다. 그에 대한 우호적 선입견이 있기에 공과를 떠나 편협적 판단을 하기 쉽다. 그러기에 특정 지도자나 CEO, 이념이나 정당을 떠나 객관적 시각을 가지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먼저, 얼마나 준법의지를 갖고 있으며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가이다. 어떤 명분이라도 지켜져야 할 1조이다. 다음, 얼마나 합리적, 합목적으

로 일을 해왔거나 하는가이다. 리관유처럼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행한 것처럼. 세번째는, 얼마나 국민, 사원(기업가)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자유인권, 복리를 위해 노력했는가이다. 지도자(CEO)와 정당의 가치를 적어도 위 3가지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은 외면한 채, 감정적, 또는 여러 외인적 요소로 지지를 결정한다. 이는 나라나 기업, 국민 전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 31년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국민들 가슴에 새겨진 싱가포르 리관유 전 총리, 그의 정치철학과 언행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기고문

‘히트 쇼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서 목욕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트 쇼크(Heat Shock)’ 때문입니다. 히트 쇼크는 뜨거운 탕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될 때, 체온과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수건이나 가운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시간 입욕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 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요? 첫째, 의식 확인과 도움 요청입니다.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지 확인하



최승범
남원소방서
구급팀장
소방경

고 주변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서 119 신고와 AED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가슴압박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양손을 깎지 끼고 손바닥 아래 부위로 5cm 이상 깊고 빠르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하며, 소아의 경우 한 손으로 압박하며 영아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을 약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압박합니다. 마지막으로, CPR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 스스로 숨을 쉬기 전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익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라며, 남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날 뜯어먹지는 마세요”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초콜릿 박람회에서 한 예술가가 ‘키카오 쇼’ 뮤지컬 공연 중 초콜릿이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공연하고 있다.

사설

옥스퍼드 사전 한글

미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프닝 장면에서는 주인공들이 입 안 가득 김밥을 흡입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앞서 2023년에는 미국 마트 체인 ‘트레이더 조’에서 냉동 김밥이 품질 상태로 이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종종 스시로 잘못 불리지는 김밥은 교유의 종미와 역사를 가진 인기 있는 한국 요리”라는 설명과 함께 요리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단무지(danmujji)는 이미 김밥용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다”는 요리 팁을 덧붙였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는 48개라고 한다. 요즘은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인기가 계속 커지면서 모든 것에 ‘K-’라는 접두어가 붙는 것 같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한국과 관련된 단어들도 수십개 등재돼 있다. 오래된 단어들은 17세기부터

영어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전에 등록된 한국어 기원의 단어들은 대부분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영어에 들어온 것들이다. 1990년대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상승은 2010년대에 이르러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성공으로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세계로 판매되고 있다. 영어가 공식 언어도 아니고 다수 언어도 아닌 국가가 현대 영어 어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K-트렌드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스타일 등 다양한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세계 각지의 영어 사용자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충성 편지 이어달리기

북한 주민들은 최근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에 한창이다. 각 지방에서 최고지도자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를 써서, 이걸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20일 첫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열린 평안남도 성천군과 대규모 온실 종합농장이 보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지난 2022년 9월 대규모 신행 농기계보급이 이루어진 황해남도 해주시 등에서 출발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대열의 이동 경로를 설명했다. 이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등 행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요즘 북한의 첫 번째 소식이다. 북한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일꾼들이다. 이들은 최근 ‘충성의 편

지 이어달리기’를 위해 백두산에 올랐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는 김정일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담은 붉은 가방을 평양까지 계주 형식으로 운반하는 군중대회이다. 각 도의 지방당과 경제기관, 대학 등의 간부들과 청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조선중앙TV는 9월 19일 “사회안전군장병들의 불같은 충성과 견결한 애국적기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비상히 승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대회는 1950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했다. 이후 기념화단한 국가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올해는 10월 10일에 있을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